

인도의 2012년도 예산안 주요내용 및 평가

- 2012년 3월 16일 인도정부는 △재정건전화, △포괄적 성장(inclusive growth) 강화, △성장모멘텀 회복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/13년¹⁾ 예산안을 발표하였음.
- 인도정부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2012년도 목표 재정적자규모를 GDP대비 5.1%로 축소(2011년도는 GDP대비 5.9%) 설정하였으며, 이를 위해 세수 확대, 보조금 감축, 공기업 매각을 추진하기로 함.
 - 총 지출은 전년대비 13.1% 증가한 14.9조 루피(약 3,100억 달러)²⁾로 2011년도 (3.4%)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, 총 수입을 간접세율 인상과 공기업 매각 추진 등으로 대폭 늘려서(22.7%) 적자규모를 축소한다는 계획임.

표 1. 2012년도 예산안 주요내용

구 분1)	2012년도 예산액 (십억 루피)	2012년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가율5)	2011년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가율5)
총 지출(Total expenditure)	14,909	13.1%	3.4%
비계획지출(Non plan expenditure)	9,699	8.7%	-0.7%
계획지출(Plan expenditure)	5,210	22.1%	11.8%
총 수입(Total revenue)	9,773	22.7%	-3.3%
세수입(Tax revenue)	9,357	22.1%	13.6%
자본수입(Non-debt capital revenue)	417	93.6%	-15.6%
재정적자(Fiscal deficit)(%to GDP)	-5.1%	-5.9%	-4.9

주: 1) 예산안 총 지출규모는 계획지출과 비계획지출을 합한 금액이며, 계획지출(Plan expenditure)은 비계획지출에 포함되는 이자지불, 연금, 일반서비스, 사회서비스, 국방비, 주정부 지원금, 공무원 월급 등 고정지출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임.

자료: India Budget 2012/13.

- ‘포괄적 성장’ 정책 강화를 위해 교육, 보건, 지역인프라개발 등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였음.
 - 교육 및 보건 부문에 대해 예산이 각각 21.7%, 15% 증가하였으며, 농촌 및 소외 지역 인프라개발에 대한 예산 역시 20% 이상 증가함.
- 또한 성장모멘텀 회복을 위해 인프라부문 투자확대, 제조업육성, 농업부문 투자확대 등의 조치들이 추진됨.
 - 1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인프라부문에 대한 투자를 50조 루피(약 1조 달러)로 확대하였으며, 농업발전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및 농업종사자에 대한 금융지원이

1) 2012년 4월~2013년 3월 회계연도를 의미함. 이하에서는 2012년도로 표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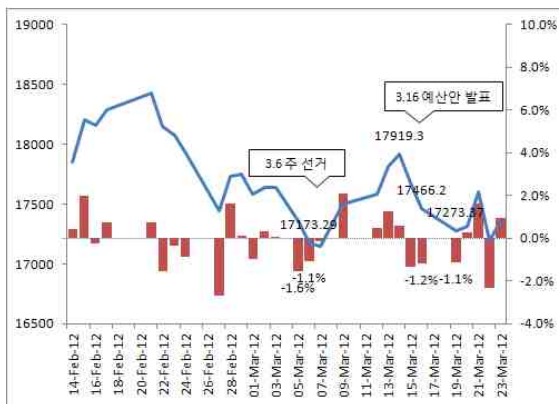
2) 루피화의 환율은 3/27일 기준으로 달러대비 50루피임.

확대됨.

■ 주요기관들은 △핵심 개혁정책의 부재, △재정건전성 실현 불확실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회의적 반응을 보임.

- 인도정부는 세제개혁, 연금법·은행법·보험법 개정, 소매유통시장 개방 등 주요 개혁개방정책 추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보임.
- 무디스, 골드만삭스 등은 재정적자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, 보조금 감축 및 공기업 매각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전망함.
 - 예산안이 발표된 3월 16일 인도증시는 전일대비 1.2% 하락하였으며 3월 17일에도 전일대비 1.1% 감소함.

그림 1. 증시 변동추이 및 평가



자료: <http://www.bseindia.com>

기관	평가 및 전망 내용
무디스	- 재정적자 확대 우려
골드만삭스	"
노무라	- 2011년 재정적자 확대예상(6.1%)
Standard Chartered	- 보조금 감축 실천에 부정적
RBS	"
HSBC	"
City	"

자료: 각 기관 발표 자료를 참고함.

(송영철 연구원, 최윤정 전문연구원)